

원저

《鍼灸節要聚英》의 문헌적 특징에 관한 연구

김기욱 · 박현국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 의사학교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소

Abstract

A Study of th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Chimgujeolyochiyung(鍼灸節要聚英)》

Kim Ki-wook and Park Hyun-guk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We would like to look into the understanding and errors of the changes in the 'Suhyeoljuchijeung(腧穴主治症)'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rough the documentary study of Gomu's(高武) 《Chimgujeolyochiyong》 today.

Methods : Based on Hwangyongsang(黃龍祥)'s study, the author of the 《Chimgujeolyochiyong》, date it was written, the number of volumes and edition, basic contents, basic constitution, referenced books and characteristics, influence on posterity, the documentary research results will be arranged.

Results & Conclusions :

1. 《Chimgujeolyochiyung》 was first printed in the 16th year of the Gajung(嘉靖) era during the Myeong(明) dynasty(1537). It has a total of 7 volumes and is divided into 3 books(帙). The first book is three volumes of 《Chimgujeolyo(鍼灸節要)》, and the second and third books are 4 volumes of 《Chimguchiyung(鍼灸聚英)》.

2. The main content of this book is 'Suhyeoljuchijeung(腧穴主治症)' of volume 1, and was written based mainly on Wangjipjung(王執中)'s 《Chimgujasenggyeong(鍼灸資生經)》. also it was the first to systematically arrange the indications of acupuncture points after 《Myeongdanggyeong(明堂經)》.

3. The author, Gomu was influenced by the 'literary restoration movement(文學復古運動)' of the time, resulting in the 'Jongyeongsunggo(尊經崇古)' ideology being reflected in 《Chimgujeolyochiyung》.

Key words : 《Chimgujeolyochiyung(鍼灸節要聚英)》, 《Chimgujeolyo(鍼灸節要)》, 《Chimguchiyung(鍼灸聚英)》, 'Suhyeoljuchijeung(腧穴主治症)', mistake in the rearrangement process, Gomu(高武)

· 접수 : 2008. 9. 9. · 수정 : 2008. 9. 26. · 채택 : 2008. 9. 27.
· 교신저자 : 김기욱,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 의사학교실
Tel. 054-770-2664 E-mail : kkw@dongguk.ac.kr

I. 서론

《鍼灸節要聚英》은 모두 3帙이다. 즉 上帙은 《鍼灸節要》 3권이고, 中·下帙은 《鍼灸聚英》 4권으로 모두 7권인데 明代 의가인 高武가 편찬하였다. 이후에 유전하는 과정에서 이 두 集이 두 부의 독립된 책으로 유전되기도 하였다.

上集인 《鍼灸節要》(《素難節要》라 하기도 함. 일본 간본에는 《鍼灸素難要旨》라 함)는 《黃帝內經》, 《難經本義》에서 침구에 관한 논술을 발췌하여 편을 나누어 만들었다. 下集인 《鍼灸聚英》은 각가의 침구학설을 모은 것이다. 후세 침구학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권 1 ‘經絡竅穴類聚’ 부분이다.

高武는 元代 杜思敬의 《鍼灸節要》가 “於十二經井榮俞經合穴, 萃集各書主治病證, 其餘竅穴則未之及”¹⁾(凡例)하기 때문에 《黃帝內經·素問》, 《千金要方》, 《鍼灸資生經》, 《鍼經摘英集》 등을 널리 찾아 ‘而補輔之’하였다. 이는 漢代 의가가 편찬한 《明堂經》을 계승하여 처음으로 腧穴의 주치증을 전면적으로 총결한 후에 또한 대규모로 침구수혈 문헌을 집록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객관적으로 착오를 많이 나타내었다. 高武가 의서의 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문헌을 인용 처리함에 엄격하지 못해 많은 착오를 범하였다. 착오는 明末 楊繼洲, 靳賢의 《鍼灸大成》에 이어져 명대 이후 현대 침구 수혈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오늘날 鍼灸腧穴 주치증의 변천을 고찰하는데 《鍼灸聚英》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보고가 부족한 실정하기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논자는 《鍼灸聚英》凡例에 나타난 高武의 입장과 集用書目을 중심으로 삼고 최근 黃龍祥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1,2)} 明代의 대표적인 鍼灸醫籍인 《鍼灸節要聚英》에 관한 작자와 성서 연대, 권수와 판본, 기본 내용, 기본구성, 체제, 인용문헌, 인용문헌의 특징, 학술적 가치와 후세 침구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문헌적인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론 및 고찰

1. 작자와 성서 연대

高武는 호가 梅孤子이고 명대 浙江 鄞縣 사람이

다. 天文, 律呂, 兵法, 騎射에 모두 능통하였다. 嘉靖 시기에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 북으로 올라갔으나 어떤 연유로 임용되지 못하자 남쪽으로 돌아와 의학에 전념하였고 만년에는 더욱 정진하였다. 의학이론은 《黃帝內經·素問》, 《難經》을 오직 중시하였고, 이것으로 후세 제가들의 의학적인 장단점을 가리는데 표준으로 삼았다.

高武는 嘉靖 8년(1529)에 먼저 《鍼灸節要》 3권을 집성하였다. 그는 당시 의학의 풍조를 비판하고 의약과 침구를 일체화 시키려고 시도하여 “是針灸藥三者得兼, 而後可與言醫”³⁾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원류를 소급하여 ‘古人立法之善’을 알게 되었고, 다시 후세 제가들의 의서를 취하여 《鍼灸聚英》 4권을 편찬하고 그 흐름을 궁구하여 “後世變法之弊”³⁾(이상 <針灸聚英引>)를 밝혔다.

또한 당시 鍼灸銅人에 기재된 혈의 定位가 옛 법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 여자, 아동 각 하나씩 鍼灸銅人 3벌을 친히 주조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전하지 않는다.

침구서 이외에 《痘疹正宗》(《本草綱目·序例》에서는 ‘痘疹管見’으로 되어 있음) 4권, 《射學指南》, 《律呂辨》 등을 저작하였다. 《浙江通志》에 高武의 저작이 실려 있어 “《鍼灸聚英發揮》, 《直指》各三十卷, 行於世”²⁾라 하였다. 실은 《鍼灸聚英》은 4권만 있고, 《鍼灸直指》는 명대 徐春甫의 《古今醫統》에 나타나는데 단지 1권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주로 高武의 《鍼灸節要》, 《鍼灸聚英》에서 베낀 것이다.

2. 권수와 판본

高武는 원래 《鍼灸節要》, 《鍼灸聚英》을 한 부의 책으로 만들어 두 부분으로 편찬하였다. 앞뒤 두 책은 상호 발명하였는데, 예를 들어 “周身尺寸已詳於前集《素難節要》”¹⁾하고, 後集인 《鍼灸聚英》은 “止繪圖各分寫於上, 以便準量取穴”¹⁾(凡例)하였다. 前集의 書目에 《黃帝內經·素問》, 《難經》의 해제를 실었고 後集인 《鍼灸聚英·集用書目》에서는 생략하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후 두 集에는 상세히 설명하거나 생략한 것이 있어 서로 보완하여 완전한 침구서로 함께 구성하였다.

後集인 《鍼灸聚英》의 편폭이 크기 때문에 각인할 때에 이를 나누어 두 질로 만들어 모두 3질이다. 中國中醫研究院 도서관에는 이 책의 初刻本 2부가 소

장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부는 《鍼灸節要聚英》을 습
 刻한 온전한 七卷本이고 다른 한 부는 《鍼灸聚英》
 四卷만 있다.

《鍼灸節要聚英》의 판본계통은 매우 간단하여 현
 재 알려진 刊本은 단지 한 종으로 즉 明代 嘉靖 16년
 陶師文의 刻本이다. 이밖에 일본에 몇 종의 간본이 있
 는데 書名, 分卷, 附圖 모두 原刊本과 다르다. 아래에
 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明·嘉靖 丁酉年(1537) 陶師文 刻本’

半版마다 12행이고 각 행은 22자로 되어 있으며 黑
 口가 거칠고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다. 서문과 첫 권의
 版心に 기재되어 있는 서명은 《鍼灸節要聚英》이고,
 全書는 上·中·下 三集으로 나누져 있다. 上集은 《
 鍼灸節要》 3권, 中集은 《鍼灸聚英》 권 1, 下集은
 《鍼灸聚英》 권 2, 3, 4이다. 이 판본은 斷版과 글자
 의 흔적을 분간할 수 없는 곳을 발견할 수 있고, 개별
 적으로 문자가 모호한 곳에 후인이 매워 넣어 初印本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正徳本’

《中國中醫圖書聯合目錄》 <鍼灸聚英>조문 아
 래에 ‘明正徳十四年己卯刻本’이라 기재되어 있고 浙
 江 寧波 天一閣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판본
 은 권 2-4, 3권만 있고 심각하게 부식되고 벌레가 먹
 어 온전치 못하다. 그러나 板式과 刻字의 모양 및 인
 쇠한 종이의 질은 陶師文의 刻本과 완전히 같다. 다른
 점은 天一閣 藏本의 책 뒤에 四明 呂和의 後序(단지
 반 페이지만 있음)가 있고, 그 내용은 《聚英》과 어
 긋나지 않으며 서문을 지은 연대가 ‘正徳 己卯(1519
 년)’로 《聯目》에서 이를 근거하여 이 판본을 ‘正徳
 本’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高武의 자서에 나타난 날
 짜가 ‘嘉靖 己丑(1529년)’으로 되어 있어 正徳시기에
 는 《鍼灸聚英》이 아직 성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간각본이 세상에 나오기가 불가능하다.

3) ‘日本刻本’

《鍼灸聚英》이 일본에서 寬永 17년(1640)에 처음
 간행되었고 원서를 8권으로 나누었다. 제1권을 4권으
 로 나누었고 제4권을 2권으로 나누었고 서명도 《鍼
 灸聚英發揮》로 바꾸었다. 내용에 있어서 원서의 첫
 권인 明堂臟腑圖를 삭제하고 일본에서 간행된 단행
 본인 《十四經發揮》에 있는 十四經穴圖로 《鍼灸聚

英》의 原圖와 바꾸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수많은
 기타 침구서에 있는 경혈도는 《十四經發揮》의 腧
 穴圖를 채용하였는데, 이는 이 책이 일본 침구의학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일본에서 18번 간행
 될 수 있었고 이 책 속의 腧穴圖가 단행본으로 만들
 어져 출판되었다.

寬永本 끝에 간각된 연월이 삭제된 것이 있어 北京
 大學圖書館에 한 부가 소장되어 있다. 일본에서 1978
 년에 출판한 《鍼灸醫學典籍大系》에 수록된 《鍼灸
 聚英》이 바로 이 간본이다.

寶曆 3년(1753)에 岡本一抱子가 《鍼灸節要》를 다
 시 간각하고 《鍼灸要旨》라 개명하였다. 이 판본의
 각 편 앞에 모두 차례를 붙여 검색에 편리하게 하였
 고 원본 가운데 개별적인 錯字, 缺文을 보완하여 정정
 하였다.

4) ‘組版印刷本’

1961년 上海科技出版社에서 《鍼灸聚英》 ‘조판인
 쇠본’을 출판하였다. ‘出版說明’에서 日本 正保 2년에
 조판인쇄한 판본에 의거하였다고 하였다. 저본과 대
 조해 보면 이 인쇄본은 원서를 비교적 많이 고쳐 원
 서의 옛 모습을 상당히 잃었다.

1958년 上海衛生出版社에서 日本 岡本氏의 重刊本
 에 의거하여 《鍼灸素難要旨》 인쇄본을 출판하였다.
 이 판본은 고친 것이 비교적 적어 日刊本의 옛 모습
 을 대체로 보존하고 있다.

3. 기본 내용

《鍼灸節要》는 《黃帝內經》, 《難經本義》에서
 침구에 관한 것을 발췌하였고, 《鍼灸聚英》은 내용
 이 상당히 복잡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권 1의 ‘經絡腧穴’은 명대 이전의 의서에서 경락,
 경혈에 관한 원문을 집록하였고, 657개 경혈의 주치
 증에 중점을 두었다. 그 가운데 14경의 내용은 元代
 滑壽의 《十四經發揮》를 직접 베꼈고, 腧穴 부위는
 주로 南宋 王執中の 《鍼灸資生經》에서 수록하였으
 며, 개별적인 腧穴 정위는 《十四經發揮》에 의거하
 여 약간 개편하였다. 刺灸法의 내용도 《鍼灸資生經
 》을 직접 베꼈으며 이 책에서 인용한 ‘素注’(즉 唐代
 王冰의 《素問》注)부분은 王冰 注의 원문에 의거하
 여 일부 보충하였다.

腧穴 주치증에서 12경 五輸穴 부분은 杜思敬의

《鍼經節要》(이 책의 전문은 五卷本 《銅人圖經》에서 베껴옴)에서 주로 따왔고, 그 나머지 여러 혈의 주치증은 주로 《鍼灸資生經》에서 집록하였으며, 이밖에 《鍼經摘英集》, 《潔古雲岐鍼法》(‘雲岐子論經絡迎隨補瀉法’이라고도 함) 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목할 점은 각 經의 五輸穴마다 각기 두 혈의 주치증이 있고 상응하는 경맥병후를 수록한 것이 있는데, 이는 高氏가 滑壽의 《難經本義》에서 母子迎隨補瀉에 관한 논술(《鍼灸節要·補瀉》 권 1에 《難經》 69難 滑氏의 注文을 인용한 것이 나타남)에 근거하여 12경의 病候와 治則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점이다. 예를 들어 肺經의 病候인 “肺脹滿膨膨, 臂內廉痛……缺盆中引痛, 掌中熱, 數欠, 肩背痛寒……溺色變, 卒遺矢無度”⁴⁾ 등의 증상을 手太陰 俞穴인 ‘太淵’에 귀입시켰고, “肩背痛, 汗出中風, 小便數而欠, 溺色變, 卒遺矢無度”⁴⁾ 등의 증상을 手太陰 合穴인 ‘尺澤’에 귀속시켰다. 기타 각 경의 병후도 모두 五行相生의 母子 관계에 따라 각 경의 母, 子혈에 각기 귀입시켰다.

권 1의 ‘經絡腧穴’은 《鍼灸聚英》의 주체부분으로 편폭이 이 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鍼灸節要聚英》 全書 3集 가운데 제2집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高氏가 비교적 중요하게 여긴 내용으로 이 부분의 문자에 대해 高氏의 논의가 상당히 적어 上集인 《鍼灸節要》의 원칙과 같게 처리하였다.

권 2는 ‘病症取穴治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권은 각 의서에서 ‘騎竹馬法’, ‘四花穴法’, ‘灸療穴法’, ‘取腎俞法’, ‘子午流注鍼法’, ‘寶氏八穴’, ‘東垣鍼法’ 등을 수집하고 劉純의 3부 의서에서 ‘鍼灸證治’에 관한 3편을 집록하였다. 수록한 각가의 학설에 대해 高武가 많이 논의하여 칭찬하거나 비난하였는데, 전적으로 《黃帝內經·素問》, 《難經》으로 따져 高武가 당시 문학 복고운동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일종의 崇古尊經 태도를 반영하였다.

권 3은 ‘刺灸法’에 관한 내용이다. 이 권에서는 당시 유행한 각종 자법과 구법의 원문을 모아 편집하였다. 高氏가 많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세인들에게 ‘知後世變法之弊’하게 하였다. 이는 여전히 ‘厚古薄今’한 高武의 사상을 반영하였다. 明代의 刺灸法 특히 補瀉手法은 확실히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임상실천이지 《黃帝內經·素問》, 《難經》의 經旨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아니다.

권 4는 ‘鍼灸歌賦’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권

은 당시 유행한 각종 鍼灸歌賦를 모은 것으로 수록된 歌賦 대부분 출처를 나타내었다. 같은 歌賦가 다른 책에서도 나타나면 대부분 보다 빠른 책에 근거하여 초록하였다. 예를 들어 寶漢卿의 <通玄指要賦>는 羅天益의 《衛生寶鑒》에 의거하고 寶桂芳의 《鍼經指南》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식견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歌賦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 高武는 그의 고유한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취사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經穴名의 歌인 <十四經穴歌>는 滑壽의 《十四經發揮》에서 취하고 劉純이 편찬한 <周身經穴賦>를 채택하지 않았다.

高武는 滑壽가 만든 歌文이 “順經編葉, 有起止次序, 滑氏所撰者比之徐廷瑞‘周身經穴賦’過之遠矣”⁴⁾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몇몇 歌賦는 高武의 개편을 거친 것이다. 예를 들어 수혈의 정위를 기술한 <十四經步穴歌>는 원래 당시 유전된 鍼灸銅人에 의거하였고, 기재된 혈은 《銅人圖經》, 《十四經發揮》에 비해 많다(원래 가부는 汪機의 《鍼灸問對》에 나타남). 高武는 《十四經發揮》에 의거하여 개편하고 남은 수혈을 삭제하였다. <六十六穴陰陽二經相合相生養子流注歌>는 《子午流注鍼經》 七言의 六十六穴歌에 의거하여 五言歌로 개편하여 암송하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권 4 끝에 高氏의 <附辨> 1편이 붙어 있다. 문답 형식으로 침구학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고씨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밝혔는데 그 중에 몇몇 내용은 本文 속 高氏의 按語에 나타나 있다.

4. 기본구성

《鍼灸聚英》은 本文, 注文, 附圖 세 부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注文과 附圖에 관한 정황을 아래와 같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注文

注文의 구성은 비교적 복잡하여 大字注文이 있고, 小字의 雙行夾注가 있고, 原注, 原按이 있고 高武의 注文, 按語가 있다.

2) 附圖

《鍼灸節要》 첫 권에 한 쪽의 ‘九鍼圖’가 있는데, 元代 杜思敬이 편집한 《鍼經摘英集》에서 나왔다. 《鍼

灸聚英》 첫 권에 銅人圖 3폭과 臟腑圖 1폭, 仰人, 伏人 骨度圖 각 1폭이 실려 있다. 권 1 本文에 同身寸取穴圖 1폭과 十四經穴圖 14폭이 있다.

상술한 正, 伏人骨度圖는 前集 《鍼灸節要》에 수록된 《黃帝內經·靈樞·骨度》 경문에 근거하여 그린 것으로 高武와 동시대인 汪機의 《鍼灸問對》에 실린 折量取穴骨度도 마찬가지로 《黃帝內經·靈樞》의 경문에 의거하였다. 이러한 점은 嘉靖시기 尊經復古의 사조에 영향을 받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嘉靖 전후에 明代 침구서에 실린 折量骨度는 《黃帝內經·靈樞》 원문에 기초하여 수정되었다.

권 1에 실린 14經穴圖는 주로 《十四經發揮》 圖文에 의거하여 그린 것으로 圖像의 인물과 조형이 비슷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十四經發揮》의 圖는 경혈이 연결된 선과 경락이 체표로 순행하는 선을 하나로 합쳤지만, 高武의 《鍼灸聚英》에 그려진 14경혈도는 기본적으로 경락의 체표, 체내 순행노선을 반영하지 않았다.

첫 권의 正, 伏, 側 ‘銅人圖’와 臟腑圖는 高武가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네 그림은 실제로 元代 太醫院 침구과 교수 忽泰(高武는 ‘忽泰必列’로 기술함)의 《金蘭循經取穴圖解》 뒤에 붙어 있는 4폭의 대형 折疊圖에 근거하여 그린 簡化圖임을 발견할 수 있다. 원래 그림은 각기 ‘正人明堂圖’, ‘伏人明堂圖’, ‘側人明堂圖’, ‘明堂臟腑圖’라 제목을 붙였고, 앞 세 그림은 실제로 전신 14경혈의 전체적인 도보이고 네 번째 그림은 楊介의 五臟圖에서 나왔다.

아마 원래의 그림이 너무 커서 編排하기 어렵기 때문에 高武는 간략화하고 축소시킨 후에 첫 권에다 두었다. 앞 세 폭의 간략화한 그림 속에 수혈을 표기할 수가 없자 단지 상응하는 수혈을 선으로 잇고 수족 부위에 12경의 기시점이나 종점에 ‘手太陰’, ‘陽明’ 등 상응하는 경의 이름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후인이 이 세 그림을 經絡圖로 오인하기 쉬웠다.

5. 인용문헌

《鍼灸聚英·集用書目》에는 모두 17종의 의서가 기재되어 있지만 책에서 실제로 인용된 것은 이보다 훨씬 많다. 주목할 점은 《集用書目》에서 언급한 책은 모두 실제로 인용된 것이 아니고 인용한 의서도 모두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닌데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찰한다.

1) 《十四經發揮》

高武는 《鍼灸聚英》을 편찬할 때에 《十四經發揮》의 모든 내용을 거의 인용하였다. 또한 권 1에 실린 腧穴과 그 수혈의 배열차서는 《十四經發揮》에 완전히 따랐으며, 經穴圖도 滑氏의 原圖를 참조하여 그렸다. 기타 침구문헌을 인용할 때에도 종종 《十四經發揮》에 의거하여 개편하였다. 高武가 인용한 《十四經發揮》는 내용이 완전할 뿐 아니라 인용한 연대도 빠르기 때문에 《十四經發揮》를 교감하는 데 중요한 他校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高武는 《十四經發揮》를 이와 같이 중시하였을까? 高武는 “《十四經發揮》據《素問·骨空篇》論及王注, 若《銅人》, 《千金》纂皆偏書, 非岐黃正經也”⁴⁾라 하여, 여기에서 高武는 오로지 《黃帝內經·素問》으로 각가 학설의 장단을 헤아려 취사선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高武와 같은 시기 汪機가 저작한 《鍼灸問對》에서도 《黃帝內經·素問》, 《難經》만을 받아들여 당시 제가의 침법을 폄하하였는데, 책에 나타나는 허다한 논의가 고씨가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高武의 사상에는 확실한 대표성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明代 사회의 발전이 弘治, 正德시기에 이르러 통치계급이 매우 부패해져 학술적인 분위기가 더욱 침체되자 이에 전, 후 ‘七子’의 문학 복고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李夢陽, 何景明을 대표로 하는 前七子是 “文必秦漢, 詩必盛唐”²⁾이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李攀龍, 王世貞을 대표로 하는 後七子是 “文自西京, 詩自天寶而下, 俱無中觀”²⁾을 내세워 문학의 복고운동을 계속 전개시킴으로써 그 기세가 왕성하여 모든 사회적인 풍조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풍조는 의학계에 반영되어 필연적으로 《黃帝內經·素問》, 《難經》으로 후세 의학의 장단을 헤아리는 가치 지향이 출현하게 되었다.

2) 《鍼灸資生經》

《鍼灸大成·鍼道源流》에서 “《資生經》, 東嘉王執中叔權取三百六十穴, 背面顛末行分類別, 以穴屬病, 蓋合《銅人》, 《千金》, 《明堂》, 《外臺》而一之者也”⁵⁾라 하였다. 이는 徐正卿, 蒲登辰의 《鍼灸資生經·序文》에서 모두 초록한 것으로 高武가 채용한 《鍼灸資生經》은 元·大德 丁未年 國氏刊本일 가능성이 높다. 《鍼灸資生經》도 高武가 《鍼灸聚英》을 편찬할 때 기본적으로 인용한 문헌이기도 하다. 권 1

腧穴部位, 刺灸法 및 주치증 내용은 주로 이 책에 의거하여 抄錄, 轉錄하거나 輯錄하였다.

3) 《鍼經節要》, 《鍼經摘英集》,
《潔古雲岐鍼法》

세 책 모두 元代 杜思敬이 집록한 것으로 그가 편집한 의학총서인 《濟生拔粹》에 수록되어 있고 延祐 2년(1315)에 성서되었다. 《鍼灸聚英》에 杜氏의 이 세 책 원문을 거의 모두 인용하였다. 그 중에 《鍼經節要》 수혈주치의 원문은 권 1 五輸穴 아래에 수록하였고, 다른 두 책의 鍼方 주치증도 권 1에 상응하는 腧穴 속에 각기 귀속시켰다. 이밖에 권 2 <臟腑并榮俞經合主治>편도 《潔古雲岐鍼法》에서 수록하였고, 권 3 <補瀉>편은 《鍼經摘英集》에서 수록하였다.

4) 《脾胃論》

金元시기 명의인 李東垣의 《脾胃論》에서 침구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黃帝內經·素問》, 《黃帝鍼經》(즉 《靈樞經》의 초기 傳本)에서 수록하였기 때문에 高武가 이를 매우 중시하여 상응하는 腧穴主治 아래에 이 책의 鍼方穴法을 상세히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 2에 <東垣鍼法>편을 전문으로 배열하여 《脾胃論》의 침법에 관한 조문을 모아 수록하였다. 高武는 “東垣鍼法悉本 《素》, 《難》, 近世醫者只讀 《玉龍》, 《金鍼》, 《標幽》等歌賦, 而於先生之所以垂教者, 廢而不講. 宜其鍼之不古若, 而病之不易廖也, 茲故表而出之, 引伸觸類, 應用不窮矣”⁴⁾라 하였다. 실은 이 편에 수록된 東垣의 침법은 高氏가 上集인 《鍼灸節要》에 집록한 《黃帝內經》의 침구 내용을 벗어나지 않으며, 李東垣의 독창적인 침구이론은 주로 그의 《醫學發明》에 나타난다. 그러나 高武가 이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 이 책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5) 《傷寒治例》, 《雜病治例》,
《玉機微義》

세 책 모두 明初 명의인 劉純이 편찬하였다. 劉氏는 金元 의가의 영향을 받고 침구의 법을 비교적 중시하였는데, 그가 저작한 각 의서에 鍼灸證治에 관한 내용을 부기하였다. 高武는 이 세 책에서 鍼灸證治에 관한 원문을 일일이 골라내어 3편으로 만들어 권 2의 끝에 실었다. 주목할 점은 高武가 鍼灸證治를 수록할 때에 개별적으로 유사한 병증의 침구증치 조문을 합

병시켰다. 이밖에 《鍼灸聚英》 가운데 몇몇 歌賦는 劉純의 다른 의서인 《醫經小學》에도 나타난다. 이를 劉氏의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徐氏의 《鍼灸大全》에서 인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高武는 劉純의 의서에서 침구에 관한 내용을 대량으로 수록하였지만 권 1에 腧穴 주치증을 수록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 劉氏의 의서를 李東垣, 杜思敬 등 금원 의가의 의서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 《神應經》

明初 劉瑾이 陳會의 침구서를 기초로 보완하여 편성한 것이다.全书의 주제적인 부분은 543조의 침구증치에 관한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분의 내용은 주로 《普濟方·鍼灸門》에 의거하여 개편하여 만든 것으로 陳會나 劉瑾의 침구임상경험을 총결한 것은 아니다. 高武는 《普濟方》 원서를 보지 못하고 《神應經》에 실린 침구증치에 관한 원문을 운문으로 편성하여 책의 말미에 붙였다. 이 부분은 《神應經》을 교감하는데 他校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鍼灸聚英》 권 3 <補瀉>편에서도 《神應經》의 원문을 수록하였지만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인용하였다.

침구서 이외에 高武의 《鍼灸聚英》에는 王冰의 《素問》注, 宋代 《證類本草》, 元代 羅天益의 《衛生寶鑑》, 危亦林的 《世醫得效方》, 滑壽의 《讀素問抄》, 《難經本義》, 王倫의 《明醫雜著》 등도 광범하게 인용하였다. 동시에 《史記》, 《楊文懿文集》 등 文史書에서 침구에 관한 논술을 수록하여 高武가 채록한 書目的 범위가 매우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高武는 王惟一의 《銅人圖經》, 《太平聖惠方·鍼灸篇》, 《普濟方·鍼灸門》 등과 같은 극히 중요한 鍼灸書나 專篇은 보지 못했다. 이는 권 1 수혈 부분을 편사함에 매우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이 권의 집필에 따른 질적인 내용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밖에도 매우 가치 있는 몇몇 침구서가 있는데, 元代 太醫院 침구과 忽教授의 《金蘭循經取穴圖解》와 같은 것은 高武가 원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편집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원서에 있는 4폭의 대형 折疊式 ‘明堂圖’ 原圖를 책속에 수록할 수 없어 단지 간략하게 축소시킨 4폭의 상응하는 그림을 권의 첫머리에 실었다.

《鍼灸聚英》의 <集用書目>에 수록된 《子午經》一卷, 《銅人鍼灸圖》三卷, 《明堂鍼灸圖》三卷, 《外臺秘要》 4책의 제요는 모두 宋代 晁公武의 《郡齋讀書志》에서 베낀 것으로 高氏는 원서를 보지 못하였

기 때문에 本文에 이 4책은 인용되지 않았다. 《銅人鍼灸圖》의 提要는 高氏가 晁公武의 提要 원문 뒤에 “然其膠穴比之《內經》‘本輸’, ‘骨空’等篇, 頗亦繁雜也”⁵⁾라는 구절을 붙였다. 책의 말미에 있는 <附辨>에서 또한 “或問《銅人》, 《千金》等書孔穴多, 《十四經發揮》所載孔穴少, 如風市, 督俞, 金津玉液等, 彼有此無, 不同何也? 曰: 《十四經發揮》據《素問·骨空論》及王注, 若《銅人》, 《千金》纂, 皆偏書, 非岐黃正經也”⁴⁾라 하여 高武는 7권본인 《銅人鍼灸經》등과 王惟一의 《銅人圖經》 3권본을 동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인용문헌의 특징

《鍼灸聚英·集用書目》에 17종의 의서가 실려 있지만 책 속에서 실제로 인용한 것은 이 숫자를 훨씬 초과한다. 그렇다면 高氏가 이 가운데 인용한 書目 모두 원서의 원문을 직접 인용하였을까? 예를 들어 高氏는 <集用書目>에서 北宋 王惟德의 《銅人鍼灸圖》를 분명히 언급하였고, 本文에서도 여러 곳에서 ‘銅人’을 언급하였으며, 권 1 ‘腧穴’ 부분에서는 매 혈의 아래에 ‘銅人’의 자구법 내용을 거의 인용하였다.

高氏가 《鍼灸聚英》을 편찬할 때 확실히 王惟一의 《銅人圖經》을 참고한 것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高氏는 당시 王惟一의 원서를 보지 못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첫째, 高武는 滑壽의 《十四經發揮》가 正經이고 ‘銅人’을 보좌적인 의서(偏書)로 보았다. 실제로 《十四經發揮》수혈 모두 王惟一의 《銅人圖經》에 나와 어느 것이 ‘正’이고 어느 것이 ‘偏’인지의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高氏는 元代 杜思敬의 《鍼經節要》에 실린 12경 五輸穴의 주치증은 ‘각 책에서 萃集’하여 만든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혈은 미비하다고 여겨 杜氏의 예를 모방하여 각 의서에 널리 수록된 諸穴의 주치증을 모았다.

실제 杜氏의 《鍼經節要》에 실린 수혈 주치증은 5권본 《銅人圖經》에서 모두 배긴 것이지 ‘각 의서에서 萃集’한 것이 아니다. 지금 高氏의 《鍼灸聚英》 권 1 수혈에서 五輸穴 주치증 전문은 杜思敬의 《鍼經節要》를 배긴 것으로, 만일 高武가 王惟一의 《銅人圖經》 원서를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腧穴 아래에 있는 《銅人圖經》의 주치증 원문을 모두 베껴지 이처럼 노력을 기울려 ‘각 의서를 萃集’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수집한 五輸穴 이외의 腧穴 주치증에는 일부 내용이 王惟一의 《銅人圖經》과 같거나 비슷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또한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검증을 통하여 《鍼灸聚英》이 부분의 내용과 刺灸法 가운데 《銅人圖經》을 인용한 글은 모두 王執中의 《鍼灸資生經》에서 수집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문자를 대조하여 보면 Table 1과 같다.

이상 《鍼灸資生經》 ‘下廉’穴의 정확한 斷句는 “在輔骨下, 去上廉一寸輔兌肉, 其分外邪. 鍼五分, 留二呼, 灸三壯”⁶⁾으로 되어야 한다.

高武는 《鍼灸資生經》 권 1의 腧穴 정위와 刺灸法의 내용이 王惟一의 《銅人圖經》에서 직접 배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각 혈의 刺灸法 앞에 모두 ‘銅人’ 두 글자를 붙였다. 그러나 《鍼灸資生經》 ‘下廉’혈의 문단에 대해 정확하게 단구하지 못하여 ‘銅人’ 두 글자를 ‘邪’자 앞에 잘못 두어 “《銅人》邪鍼五分……”⁶⁾이라 하였고, 아래 혈인 ‘上廉’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착오를 나타내었다.

만약 高武가 《銅人圖經》에서 직접 인용하였다면 이러한 착오가 나타날 수 없다. 《銅人圖經》에 기재된 刺灸法은 모두 腧穴 주치증 뒤에 있기 때문에 잘못 단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高氏가 下廉

Table 1. 《鍼灸資生經》과 《鍼灸聚英》의 인용문장 비교

	《鍼灸資生經》	《鍼灸聚英》
下廉	在輔骨下去上廉一寸輔兌肉其分外邪鍼五分留二呼灸三壯 ⁶⁾	輔骨在輔骨下去上廉一寸輔銳肉分外. 《銅人》邪鍼五分留二呼灸三壯 ⁴⁾
上廉	在三裏下一寸其分獨抵陽明之會外邪鍼五分灸五壯 ⁶⁾	三里下一寸其分獨抵陽明之會外. 《銅人》邪鍼五分灸五壯 ⁴⁾
太淵	《銅人》灸三壯鍼一分 ⁶⁾	《銅人》灸三壯鍼一分 ⁴⁾
中渚	鍼三分灸三壯 ⁶⁾	《銅人》灸三壯鍼三分 ⁴⁾

穴에 수록한 刺灸法의 문자는 각 본의 《銅人圖經》과는 모두 다르고 유독 《鍼灸資生經》과 같아 이를 《鍼灸資生經》에 의거하여 배겼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머지 ‘太淵’, ‘中渚’혈의 刺灸法 문자도 《鍼灸資生經》과 같지만 각 본의 《銅人圖經》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밖에 또한 매우 전형적인 증례가 있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아래에서 《鍼灸聚英》 권 1의 同名穴 주치증에 대하여 Table 2에서 간략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상술한 《鍼灸聚英》 ‘手下廉’의 주치증 가운데 ‘飧泄, 小腹滿, 狂言, 唇乾涎出, 乳痛’은 《銅人圖經》 ‘足下廉’의 주치증이고, ‘飧泄……不能行’⁴⁾은 《銅人圖經》 ‘足上廉’의 주치증에 나타나 《鍼灸資生經·胸脅痛》 권 5에서 잘못 수록하였다. “小腸氣……不可忍”⁴⁾은 《鍼灸資生經·腎虛》 권 3에서 잘못 수록하였는데, 원문에는 “下廉療小腸氣不足面無顏色灸小腸氣痠癢, 氣發時腹痛若刀刺不可忍者併婦女本臟氣血癰走疰刺痛或坐臥不得, 或大小便不通, 可思飲食, 於左右腳下第二指第一節曲紋中心各灸十壯”⁶⁾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小腸氣不足, 面無顏色”⁶⁾은 《太平聖惠方·鍼經》 권 99에서 배겼고 그 나머지 병증은 奇穴이 所主하는 것으로 ‘下廉’과는 상관이 없다. 바로 《鍼灸資生經》에서 《銅人圖經》 등의 원문을 배겼기 때문에 高氏는 同名穴의 주치증에 대해 판정하기 어려워 적지 않은 同名穴의 주치증을 각기 두 혈 속에 귀속시켰다. 이는 실로 일종의 부득이한 처리 방법이었지만 결국 원서의 뜻과는 부합하지 못했다. 기타 腰, 膝의 ‘陽關’, 手, 足の ‘三里’, 頭, 足の ‘臨泣’, ‘竅陰’, 足, 腹의 ‘通谷’ 등 同名穴의 주치증에서 모두 유사한 착오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王惟一이 《銅人圖經》을 편찬할 때에 王冰의 《黃帝內經·素問》 注文에 의거하여 督脈穴에서 ‘陽關’穴을 증보시켰지만 이 혈의 주치증은 보완시키지 못했다. 王執中이 《鍼灸資生經》을 편찬하여 수록한 ‘陽關’의 주치증은 모두 《銅人圖經》과 《千金要方》에서 ‘膝陽關’의 주치증을 배겼는데, 高武는 《鍼

灸資生經》에 수록된 腧穴 주치증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陽關’에 대해 판별할 방법이 없어 단지 이를 ‘腰陽關’과 ‘膝陽關’ 二穴 속에 각기 귀속시켰다.

高武가 《鍼灸聚英》에서 이러한 腧穴 주치증을 《銅人圖經》에서 직접 수록하였다면 同名穴의 주치증에 대해 명실상부하지 않는 착오를 결코 나타낼 수 없었을 것이다(《銅人圖經》의 腧穴 주치증은 모두 상응하는 수혈의 정위에 관한 문자 뒤에 집중적으로 배열하였기 때문에 판별에 착오를 범할 가능성이 없음). 이를 《鍼灸資生經》에서 배겼다면 同名穴의 주치증이 서로 뒤섞이는 착오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鍼灸資生經》에 몇몇 특유한 실수나 착오가 《鍼灸聚英》에도 나타난다.

高武의 《鍼灸聚英》 권 1 ‘腧穴刺灸法’에서 인용한 ‘明堂’의 문자와 주치증 가운데 《太平聖惠方·鍼灸篇》과 같은 내용은 모두 《鍼灸資生經》에서 배긴 것으로 원서에서 직접 수록하지 않았음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高武의 《鍼灸聚英》 수혈에서 인용한 《銅人圖經》 刺灸法은 원서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鍼灸資生經》에서 배긴 것은 고씨가 일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銅人圖經》의 수혈 주치증을 인용한 것이 《鍼灸資生經》에 의거하여 전록하였지 직접 원서를 인용하지 않았다면(高氏가 이 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술한 가설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방법은 원서를 직접 인용하는 것에 비해 몇 배나 복잡한지 알 수 없고, 또한 同名穴의 주치증을 배긴 것이 원서에 의거하지 않았다고 판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高武가 《鍼灸聚英》을 편찬할 때에 《銅人圖經》, 《明堂》 등을 보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高武와 같은 시기 汪機, 薛己 등의 침구서에서도 모두 《銅人圖經》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고, 이보다 약간 이른 楊珣의 《鍼灸集書》에서 인용한 《銅

Table 2. 《鍼灸聚英》 권1의 同名穴 주치증에 관한 비교

手下廉	足下廉
“主飧泄勞瘵小腹滿, 小便黃, 便血, 狂言, 偏風, 熱風, 冷痺不遂, 風濕痺, 小腸氣不足, 面無顏色, 痲癢, 腹痛若刀刺不可忍, 飧泄, 腹脅痛滿, 狂走, 夾臍痛, 食不化, 喘息不能行, 唇乾涎出乳痛” ⁴⁾	“主小腸氣不足, 面無顏色, 偏風腿痿, 足不履地, 熱風冷痺不遂, 風濕痺, 喉痺, 脚氣不足, 沉重, 唇乾涎出不覺, 不得汗出, 毛髮焦肉脫, 傷寒胃中熱, 不嗜食, 泄膿血, 胸脅小腹控牽而痛, 時寤之後, 當耳前熱, 若寒甚, 若獨肩上熱甚, 及小指次指之間熱痛, 暴驚狂, 言語非常, 女子乳痛, 足跗不收, 蹠痛” ⁴⁾

人圖經》은 石刻碑文에 의거한 것이지 刊本은 아니었다. 이는 金, 元시기에 책방에서 刊印한 五卷本 《銅人圖經》은 명대 중기에 이르러 보기가 매우 드물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明堂’ 혹은 ‘明堂經’본은 王執中이 《鍼灸資生經》을 편찬할 때에 《太平聖惠方》 권 99, 권 100 <鍼灸篇>의 간칭이었고, 송대 이후의 본에 내용이 이와 같이 ‘明堂經’이라 붙인 단행본이 없었기 때문에 송대 이후 침구서에서 ‘明堂’을 인용한 글은 대부분 王執中の 《鍼灸資生經》에서 배겼고 때로는 《黃帝明堂灸經》을 《明堂經》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鍼灸資生經》 권 3에서 권 7까지 각종 병증 아래에 있는 수혈의 주치 내용은 원래 王執中이 《千金要方·孔穴主對法》의 예를 모방하고, 《銅人圖經》, 《太平聖惠方》, 《千金要方》, 《千金翼方》의 ‘鍼灸篇’ 등에 의거하여 편집한 것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면키 어려웠다. 高武는 “《鍼灸資生經》立諸病目, 以各膠穴分屬, 似難於闕, 今以各經膠穴爲主, 以主某病分屬之”¹⁾ 하였고, 또한 《鍼灸資生經》에서 腧穴主對 형식을 腧穴主治로 환원시켰다. ‘환원’시킨 이러한 과정이 王執中の 작업에 비해 더욱 복잡하여 자연 착오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식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명대 이후 현대에 이르는 침구서 속에 나타나는 腧穴主治의 착오는 여기에서 기원하였다. 高武는 《銅人圖經》,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鍼灸篇 등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腧穴 주치증에 대해 계통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어려움과 번잡함은 가히 상상할 수 있고 후세 腧穴學의 발전에 대한 공헌은 지울 수 없지만 그는 당시 조건의 한계로 인하여 이와 같이 특수한 정리방법을 채용하였고 그 결과의 신빙성은 자연 높지 않다. 이상 《鍼灸聚英》 권 1 腧穴 주치증의 경위를 밝혔는데 금후 腧穴文獻을 정리하고 연구할 때에 다시는 高武의 책에 의거해서는 안 되고 고씨가 인용한 원서에 직접 준거하여 오류를 계속 답습해서는 안 된다.

권 1 ‘腧穴’ 부분에서 직접 인용한 것은 《黃帝內經·素問》과 王冰의 注文, 《黃帝內經·靈樞》, 《鍼經摘英集》, 《潔古雲岐鍼法》(그 중에 王冰의 注만이 ‘素注’라 하여 출처를 나타내었음)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王執中の 《鍼灸資生經》에서 배긴 것이다. 各家의 腧穴主治 문헌을 집록할 때에 ‘去同存異’(凡例)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 조의 문자를 수집함에 있어서 상응되게 종합하고 개편하였다.

《鍼經摘英集》 등에서 鍼方主治症을 집록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 증을 원래 침방의 각 혈 속에 모아 넣었다(개별적으로 예외는 있음). 예를 들어 《鍼經摘英集》에서 “產婦血運不省人事, 鍼支溝, 足三里, 三陰交穴”⁴⁾에 대해 高氏는 이 증을 각기 세 혈에 귀속시켰는데, 이는 漢代 의가가 편찬한 腧穴 전문서인 《明堂經》과 宋代 醫官인 王惟一이 《銅人圖經》을 편집할 때 채용한 처리방법과는 다르다.

7. 학술적인 의의와 후세 침구학에 미친 영향

《鍼灸聚英》의 학술적인 의의는 권 1 ‘腧穴主治’ 부분에 주로 나타나 있다. 高武는 당시에 唐代 王燾의 《外臺秘要·明堂》, 宋代 《太平聖惠方·鍼灸篇》, 王惟一 《銅人圖經》 등 鍼灸腧穴 전문서 혹은 전문편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혈 주치증에 대해 주로 王執中の 《鍼灸資生經》에서 집록하였고, 이밖에 杜思敬의 《鍼經節要》, 《鍼經摘英集》, 《潔古雲岐鍼法》 등에서 보충하였다. 또한 滑壽의 《難經本義》 第69難 經, 注에서 밝힌 補瀉의 원칙에 근거하였고, 十二經病候 내용을 상응하는 경맥의 五輸穴에 귀속시켰다.

이와 같이 《鍼灸聚英》 권 1의 ‘腧穴主治’는 실제로 《千金要方·孔穴主對法》과 그 鍼灸方, 《太平聖惠方·鍼灸篇》, 《銅人圖經》, 王執中の 鍼灸醫案(모두 《鍼灸資生經》, 《鍼經節要》를 집록하거나 초록하였다), 金元 의가의 鍼方(대부분 杜思敬의 《濟生拔粹》에서 집록하였음), 《黃帝內經》의 鍼灸方(원서를 직접 수록)의 주치증을 종합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내용은 이전의 腧穴 전문서나 전문 편장에 실린 腧穴主治보다 훨씬 많다.

高氏가 집록하고 정리한 수혈주치의 내용은 또한 明代 徐春甫의 《古今醫統大全》과 楊繼洲, 靳賢의 《鍼灸大成》에서 전문이 초록되어 후세 침구학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鍼灸聚英》의 수혈주치 대부분이 원서를 직접 초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많은 착오를 나타내게 되었고 이러한 착오 또한 그 이후 침구서에서 많이 답습하여 현대 침구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금후 수혈문헌 연구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鍼灸聚英》에서 인용한 문헌이 매우 풍부하다.

인용한 의서 몇몇은 현재 이미 실전되었고 몇몇 판본은 현행본보다 빨라 문헌적, 판본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攔江賦>는明代 鍼灸六家인 凌雲 鍼書의 초고에서 인용한 것으로 원서는 보이지 않으며, <玉龍賦>, <肘後歌>, <百症賦>, <補瀉雪心歌> 등은 최초로 이 책에 수록된 것이다. 또한 <天元太乙歌>는 劉瑾의 《神應經》에서 인용한 것으로 현행본에는 실려 있지 않고, 滑壽의 《十四經發揮》를 주요 서목으로 보고 인용하였는데, 의거한 판본도 현행본에 비해 빨라 이 책을 교감할 때에 중요한 他校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학술상으로 高武의 《鍼灸聚英》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수록한 腧穴의 숫자, 腧穴의 배열차서, 腧穴의 정위는 滑壽의 《十四經發揮》에 근거하였다.

즉明代 초기, 중기 침구서에 수록된 腧穴 및 경혈의起止, 배열차서는 대부분 당시 鍼灸銅人에 의거하여 채록하였고, 腧穴의 숫자는 《十四經發揮》 등에 비해 많다. 高武는 《十四經發揮》가 《素問·骨空篇》에서 나온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經絡悉依《十四經發揮》, 流注交接次第, 窮穴亦依之. 比之《銅人》等書, 有繁雜空穴, 皆不增入”¹⁾이라 하였다. 배부 足太陽 腧穴이 중앙에서 떨어진 거리에 대해 명대 초기 《神應經》에서 척주의 폭인 ‘1寸’을 제거시켜야 한다고 제시한 이후부터 후세 침구서에서는 대부분 이를 따랐다.

高武는 《十四經發揮》에 의거하여 다른 의견을 제출하여 “或曰, 太陽膀胱行背第二行自大杼至白環俞十七穴云, 第幾椎下兩旁, 相去各一寸半, 第三行自附分至秩邊十四穴云, 某椎下兩旁相去各三寸, 當除去脊骨一寸外量取之, 不然, 不應太近椎也. 曰‘旁’者, 指第二, 第三行窮穴皆在脊之旁也. 按滑氏云, 自大杼至白環俞諸穴, 併第二行相去脊中各一寸五分, 《歌》云, 自從大杼至白環, 相去脊中三寸間. 夫既曰‘脊中’, 則自脊骨中間量取, 而非骨外量取明矣”⁴⁾라 하였다. 高武의 이러한 관점은 정확하지만 이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모두 滑氏의 책에 의거할 필요는 없다. 복부의 足少陰, 足陽明, 足太陰 경혈이 정중앙선에서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는 《鍼灸聚英》과 《十四經發揮》가 달라 高武가 滑壽의 원서에 대해 오해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둘째, 人神禁忌를 반대하였다.

日禁이 漢代에 성행하여 의서에서도 그 영향을 받았다. 《靈樞經》, 《鍼灸甲乙經》 모두에 계통적인 日忌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고, 《黃帝內經·靈樞·官能》에서는 “必知天忌, 乃言鍼意”⁷⁾를 강조하였으며,

鍼灸日忌의 전문서인 《黃帝蝦蟆經》도 대체로 漢代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人神禁忌에 대해 高武는 “按以上諸禁忌, 唯四季所忌似合《素問》, 其餘不知何時何人所起, 如所謂尻神, 人神者, 果有之, 則不分病輕重, 犯之當有禍. 今又曰, 卒急何暇選擇, 此時人神, 尻神亦憫病危而不禍乎?”⁴⁾라고 분명히 지적하였다.

셋째, 刺法에 실용을 주장하고 名目에 치우쳐 虛玄에 빠지는 것을 반대하였다.

明代에는 刺法을 전문으로 논한 침구문헌이 대량으로 출현하였다. 그 名目이 번잡하고 조각이 복잡하여 이러한 자법이 임상에서 실제로 응용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 高武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가 《金鍼賦》 補瀉 ‘八法’, ‘四法’을 논하면서 “此八法巧立名色, 非《素》, 《難》意也”⁴⁾라 하였고, “此法亦巧立名色而已, 求鍼之明, 爲鍼之晦”⁴⁾라 하였다. 高武와 동시대 의가인 汪機도 高武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III. 결 론

본론을 통하여 논자는 침구의학사에 있어 明代의 대표적인 침구 전문서인 《鍼灸節要聚英》에 관한 문헌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鍼灸節要聚英》은明代 嘉靖 16(1537)년 全書 7권, 上·中·下 3帙로 간행되었다. 上帙은 《鍼灸節要》 3권이며, 中帙과 下帙은 《鍼灸聚英》 4권이다. 이 두 集은 각기 독립된 책으로 유전되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 《鍼灸聚英》 日刊本은 8권으로 고쳐 《鍼灸聚英發揮》라 명명하였다. 일본에서 《鍼灸節要》를 중간할 때 書名을 《鍼灸要旨》로 개작하였다.
2. 이 책 내용의 중심 부분은 권 1 ‘腧穴主治症’에 해당하며, 주로 王執中의 《鍼灸資生經》에 의거하여 집록하였고, 이밖에 杜思敬의 《鍼經節要》, 《鍼經摘英集》, 《潔古雲岐鍼法》, 그리고 《黃帝內經》 등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내용이 풍부하여 漢代 의가가 편집한 최초의 腧穴 전문서인 《明堂經》을 계승한 이래 腧穴主治症을 최초 계통적으로 총결하였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鍼灸資生經》에서 집록하고 원서를 직접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게 되었고, 이러한 착오는 명대 楊繼洲의 《鍼灸大成》 등에서 답습되어明代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침구학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작자인 高武는 당시 ‘文學復古運動’의 영향을 받아 ‘尊經崇古’사상이 《鍼灸節要聚英》에 반영되었다. 먼저 全書의 編排에 있어서 高武는 ‘《黃帝內經·素問》, 《難經》 爲醫之鼻祖’로 삼았기 때문에, 이 두 경전의 글을 《鍼灸節要》 3권에 수집 분류하여 全書의 上集으로 만들고 ‘古人立法之善’함을 알렸다. 그리고 《鍼灸聚英》 按語와 <附辨>에서 諸家의 鍼法에 관한 장단점을 평가할 때에도 오로지 《黃帝內經·素問》과 《難經》을 표준으로 삼았다.

IV. 참고문헌

1. 高武 纂集. 黃龍祥, 李生紹 校注. 鍼灸節要聚英. 鍼灸名著集成. 北京 : 華夏出版社. 1997 : 652, 694, 706, 775, 785, 794.
2. 黃龍祥, 李生紹. 鍼灸節要聚英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 778.
3. 高武 纂集. 針灸聚英發揮. 針灸醫學典籍大系 第11卷. 東京 :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80(昭和 54年) : 3, 5.
4. 高武 纂集. 中華醫學名著寶庫編輯委員會 編. 鍼灸聚英. 中華醫學名著寶庫. 北京 : 九洲圖書出版社. 1999 : 690, 691, 693, 701, 719, 726, 729, 736, 746, 765, 797, 867.
5. 盧兆麟 等 點校. 鍼灸大成. 中國醫學名著珍品全書. 沈陽 :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5 : 872.
6.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 中國醫學大成三編. 長沙 : 岳麗書社. 1994 : 109, 113, 116, 137, 158, 230.
7. 馬蒔 著. 王洪圖, 李硯青 點校.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 195, 354-55.

1. 高武 纂集. 黃龍祥, 李生紹 校注. 鍼灸節要聚英. 鍼